광주아트페어 제대로 열릴수 있을까

“광주시 불통 행정”… 미협 불참 선언
주관·운영 기관 2차 공모도 무산
市 “제안서 발표 기회 협회가 거부”

공모범위 전국 확대 3월까지 완료
역량있는 단체 찾을 수 있을까 우려

올해 광주아트페어는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지난해 보조금 부실 정산 등 운영상의 문제가 불거져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우여곡절 끝에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올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2차 공모에서도 주관기관을 찾지 못해 내실 있는 행사를 열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광주국제아트페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트페어 평가 작업에 나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진행된 아트페어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개 행사 중 9위(5등급)를 차지, 올해 행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상황이다. 문광부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고 예산 편성 때 참고하고 미술은행 작품 구입도 4등급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공모 과정에서 단독 응모, 제안서 설명을 준비하기도 했던 광주미술협회가 광주시의 안일한 문화예술 행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 공모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4억5000만원으로 꾸려지는 올해 행사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오는 9월 초 열릴 예정이다. 올해 9회째를 맞는 광주아트페어는 첫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을 시작으로 광주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등이 진행하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미술협회가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불거진 문제 등에 관한 정부합동감사 조치에 따라 올해는 공모를 진행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주미술협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5일로 마감한 1차 공모의 경우 실제 마감 시간과 공모 문서에 적힌 마감 시간이 달라 응모하지 못했고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던 제안서 설명회 장소 등도 당일 25분 전에야 통보하는 등 졸속 문화행정을 보였다”며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는 광주아트페어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미술계 소통과 화합의 장임을 인식해 제안서 공모를 성실히 준비해왔지만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차의 경우 내부 문서와 공고문의 마감 시한이 달라 발생한 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미협측은 2차서 재접수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2차 공모는 “공정성을 위해 당일 오전 평가위원을 6배 수 중 무작위 선정한 후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어렵게 연결된 사무국장 등은 발표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발표장소가 시청임은 이전에 여러차례 설명했고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발표자에게 평가위원들이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차 공모까지 무산됨에 따라 주관 단체 공모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두는 방식 등을 포함해 공모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공모를 진행하는 동안 광주미협 단 한 곳만 지원을 한 데다,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짧은 재공모 기간에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을 갖춘 주관 단체를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시 돼 이번 행사 역시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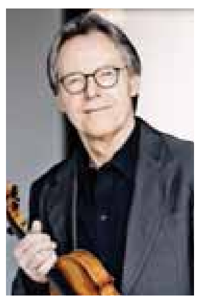
광주시 관계자는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도 있었지만 응모단체가 불참을 선언한 점은 아쉽다”며 “공고 절차를 빨리 밟아 늦어도 3월 안에는 기관을 선정, 행사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미협 관계자는 “광주아트페어를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들춰내는 주변 여건들과 시의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올해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올해 미협은 자체 축제와 페스티벌 등을 포함 내실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쏟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 후 내년에는 아트페어 참여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친구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음악회’

엄광용


야첵

이종만

히데코

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좋은친구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음악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야첵, 비올리스트 히데코 코바야시, 첼리스트 최주연이 출연하며 이밖에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옥자인·오지은, 비올리스트 엄광용·양신애· 김민수, 피아니스트 서현일·김가람 등이 출연한다.

공연을 준비한 엄광용씨는 “독일에서 공부할 시절 교수님이었던 야첵과 히데코를 초대해 연주회를 열고 싶었다”며 “이 밖에도 독주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 중 특히 잘 맞는 친구들로 출연진을 꾸렸다”고 말했다.

독일 볼프강 예술대 교수인 야첵은 폴란드 바샤우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자 폴란드 챔버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비올리스트 히데코 코바야시는 토호 음악대학교 졸업, 쾰른음대 수석 졸업했으며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출연진은 대부분 독일에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부부인 야첵과 히데코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함께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 음악회를 열게 돼 기쁩니다. 6개월~1년에 한번 좋은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 제1번 g단조 K.478’, 슈만의 ‘피아노 4중주 내림 마장조 Op. 47 ’, 멘델스존의 ‘스트링 옥텟 Op. 20’이다. 티켓가격 3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유현욱 개인전 ‘그려진 글자들’

영산강문화관 6일~4월 1일

‘복(福)’

영산강문화관이 2018년 첫 기획전으로 유현욱 개인전을 6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한다.

전시 타이틀은 ‘경계의 공간-그려진 글자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미술 장르인 민화, 특히 문자도(文字圖)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업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기하학적인 면과 색의 구성 공간에 문자를 그려 넣어 다양한 의미를 담아낸 게 특징으로 한자가 갖는 상형성과 표의성을 현대적 이미지와 결합시켜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 정중앙에 자리한 한자 ‘복(福)’을 중심으로 꽃과 이파리 등 다채로운 형상들을 조합한 작품은 흥미로우며 또 다른 작품 ‘몽(夢)’ 은 획일화되지 않은 사각 공간 안에 문자와 그림을 그려넣어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한국화를 전공한 유 작가는 9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전통수묵화에서 출발해 작품에 공예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기자 mekim@

광주 ‘미디어엑스팀’ 佛 뱅뉘메르크 비엔날레 간다

6월 14일~17일
공연 5개팀 선정

광주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미디어엑스팀’이 오는 6월 개최되는 프랑스 뱅뉘메르크 비엔날레에 초청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문화재단)은 지난 2월 프랑스 앙기엥레뱅의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행사인 ‘뱅 뉘메르크 제10회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 공모에 ‘미디어엑스’ 팀(대표 신도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앙기엥레뱅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13개국 14개 도시에서 작가 및 단체 2~3개를 추천받아 ‘뱅 뉘메르크 디지털아트 축제’에서 공연할 최종 5개팀을 선정했다. 디지털아트 축제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간 미래(HUMAN FUTUR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신도원, 펑크파마, 러러 황으로 구성된 미디어엑스팀은 미디어를 기반으로 사진·영상·퍼포먼스 등 복합장르와 과학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 예술을 펼치는 팀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 ‘문명’은 영상, 인터렉티브 사운드,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융복합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불교 경전을 몸에 쓰는 퍼포먼스와 영상 및 사운드의 결합을 통해 원시적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며 미래의 문명은 우리의 몸과 정신의 균형에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062-670-749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문예창작교실 28일 첫 강의

허형만 명예교수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가 문예창작교실을 개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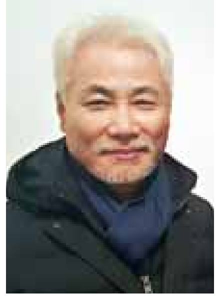
오는 28일(오후 3시 30분) 첫 강의를 시작으로 모두 16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문예창작교실은 문병란 시인의 제자이자 시인인 허형만 목포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허 시인은 이번 창작교실에서 시 이론의 실제, 시 창작의 실제, 수사와 이미지, 운율과 리듬 등 다양한 창작 이론을 실기와 접목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오후 1시) 개강하는 시낭송반은 박진천 전 재능시낭송회장이 맡아 매주 수요일 16주간 진행된다. 문예창작교실, 시낭송반 강의 장소는 모두 광주시 동구 대인동기아자동차 3층이다.

서은문학연구소는 고(故) 문병란 시인(1934~2015)이 조선대에서 퇴임한 이후 만든 연구소로 시 창작과 연구, 학술활동을 전개해온 문인단체로 문병란 시인을 기리는 추모기념사업과 5·18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200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문단에 등단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234-8158, 010-3609-757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민예총 이사장 민중미술 작가 박불똥 선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 신임 이사장에 민중미술 작가인 박불똥(62·사진)이 선임됐다.

한국민예총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에 박불똥, 부이사장에 미술평론가 강성원을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설립 30년을 맞은 한국민예총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강고한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만드는데 민족예술은 그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뉴스